

第39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市民福祉委員會會議錄

第1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2月20日(月) 午後4時30分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面

(17時35分 開議)

○議事係長 鄭恩秀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市民福祉委員會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國旗에 대한 敬禮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國旗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國旗에대한敬禮)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長 安敦洙 委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本會議에 이어서 오늘 第39回 臨時會中 第1次 市民福祉委員會에 參席하여 주신 委員 여러분과 關係公務員께 진심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대형사고로 얼룩졌으며 政治·經濟·社會 각分野에 총체적으로 變化를 要求해 왔던 한해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城北區의 地域發展과 51萬 城北區民의 福祉增進과 保健向上에 이바지코자 헌신하여 議政活動을 펼쳐오신 委員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새롭고 희망에 넘치는 새해 들어, 委員 여러분의 뜻하신바 성취되시기를 비우고 가내 두루 평온하며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市民福祉委員會 委員 여러분!

풀뿌리 民主主義 꽃이라 불리우는 地方議會의 初代議員인 우리는 4개월 열흘 남겨

놓고 있는 實情에 있습니다.

아무쯁록, 올해에도 여러 委員님의 현명한 判斷과 高見속에 충분한 論議와 理解로서 중지를 모아, 議政活動이 민의를 수렴하고 진정한 地方自治 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유종의 미로 結實될 수 있도록 적극 協調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9回 城北區議會 臨時會中 第1次 市民福祉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7時39分)

○委員長 安敦洙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城北區保健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방금 李澄淵보건소장님께서 아까 說明을 하셨는데 說明을 다시 들을까요, 아니면은 專門委員님 檢討報告만 들을까요.

(「檢討報告만 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崔石根 專門委員님으로부터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檢討하여 주시죠.

○專門委員 崔石根 안녕하십니까? 專門委員 崔石根입니다.

(檢討報告는 끝에 실음)

○委員長 安敦洙 네. 崔石根 專門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質疑·答辯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質疑가 있으신 委員님은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圭委員 아까 保健所長님으로부터 本會議의 答辯에 나왔던 部分으로써 전체의 平均으로 봤을 때에 2,000원이면은 治療를 받는 자에게 다소의 利益이 가는 金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體質에 따라서 藥品을 투여하는 것이 갖가지 다른 藥品들처럼 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對比表를 보면은 1,000원짜리 藥品이 세가지 이고 1,600원, 1,800원, 2,000원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體質에 따라서 1,000원짜리 藥을 투여하던 분한테는 결코 負擔을 주는, 治療費가 增加하는 結果를 낳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全體로는 利益이 될지라도 이 部分에 1,000원에 該當하는 분한테는 負擔을 더 增加시키는 結果이기 때문에 그 部分을 여기서 자세히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澄淵 네. 金正圭委員님이 아주 좋은 質問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說明을 했는데 補充해서 說明을 좀 자세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金額이 먼저 手數料 성격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약제하고는 거리가 먼, 다시 한 번 제가 說明을 드리면요. 여기 '가'에 보시면은 에 칸부톨+피라지나마이드+리팜피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600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에 보시면은 또 에탐부톨+리팜피신 1,600원 하는데 우선 理解를 돕기 위해서 이 리팜피신에 대한 藥劑에 대해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 藥劑가 開發되지는 오래되었는데 조금 傳門的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 藥劑가 開發된 것은 거의 반세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는 결핵에 決定的인 效果가 있다는 것이 開發되지 않고 證明되지않아 가지고 使用하지 않다가 약 20여년전에 이것이 結核에 상당한 效果가 있다는 것이 學者들간에 意見이 되어 가지고 당시에 약 2개월 분이, 제가 結核에 대해서는 專門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5만원대가 넘었습니다. 20년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쓸 수가 없었어요. 전부 輸入을 했습니다. 당시는. 그런데 世界 各 國에서 이 약을 경쟁적으로 開發하기 시작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개발에 成功

해 가지고 약 10년전부터 대량 生産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現在 시가로는 1개월분 약 값이 최소한 3,4만원 갈 겁니다. 이 약값만 그렇습니다. 이 약을 거의 手數料 빼면은 無料나 마찬가지로 支給하고 있습니다. 다마는 제가 서대문 시립병원에서 당시 結核治療에 전념하고 있을 때 初期에는 이 藥品을 우리 實情에 經濟的인 여건 때문에 대단히 淸崇한 말씀입니다. 다마는 無料患者한테는 이 약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藥品입니다 藥品이. 그런데 우리 水準이 높아지고 이제는 大量生産이 되어 가지고 동남아 또 아프리카에 輸出도 하는 큰 輸出品目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藥品이 大量生産이 되어 가지고 이 藥品에 대해서는 製藥會社에 이 藥品을 生産하는 製藥會社에는 税金이 전무합니다. 이 약품을 말하자면은 國家에서 税金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價格이 따운(down)되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無料로 供給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金額은 약 값 性格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까지 說明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說明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說明을합니다. 그렇게 理解해 주십시오. 지금 現在도 시중 약 값 2萬單位가 훨씬 넘습니다. 이 리팜피신 한 種目만 해도요.

○委員長 安敦洙 權赫驥委員님, 質疑하십시오.

○權赫驥委員 초진하고 재진하고 그 다음단계가 重患者입니까? 만성환자요?

○保健所長 李澄淵 네.

○權赫驥委員 그랬을 적에 지금 약 값 問題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에 대한 種類가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條例는 약 名稱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名稱이 없이 그냥 1개월분이 초진이든 재진이든 1개월분이 2,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진하고 재진하고 重患者, 慢性患者하고 약 들어가는 品目하고 양이 다른데 여기 이렇게 그냥 2,000원이라고 하면은 그 患者들한테 被害가 안되겠는지요.

○保健所長 李澄淵 權委員님, 질문취지를 알겠습니다. 초진료, 재치료해서 아주 單純化

되어가지고 혹시 여기 지금 모델을 表示를 해 놓았습니까라는 結核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趣旨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환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處方이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결핵균에 의한 주로 호흡기 질환의 만성염증인 것입니다. 結核이란 病名을 조금 학술적인 説明으로 드리자면 결핵균에 의한 주로 폐조직의 만성적인 염증이거든요. 조금 또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사람의 약 50%는 결핵균의 感染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感染이라고 합니다. 발견이 된 사람, 병이 된 사람, 治療를 받아야 할 사람, 환자가 된 사람은 지금 現在 1.8%로 나와 있습니다. 병이 되어서 治療를 받아야 될 사람, 약 投藥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것이 90年度 統計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금년 95年度에 다시 대한결핵협회에서 또다시 전국 比率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今年度에 1.4%가 되지않겠냐하는 展望입니다. 지금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만은 20년전에 4% 넘었는데요. 日本은 0.09% 0.1%밖입니다. 人口가 1억이 넘는데 환자 수는 100萬명도 안됩니다. 우리는 5,000만밖에 안되는데 벌써 80만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이 疾病을 발병해서 앓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權委員님 말씀대로 이것을 소홀히 治療했다가는 만성, 중환자로 가는 날에는 아주 심각한 結果가 옵니다. 결핵은 알다시피 1기에서 3기로 말씀드릴 수 있죠. 1기, 2기 때에는 완치가 거의 90% 可能합니다. 이 藥劑가 개발되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리팜피신 開發로 해서 이 결핵이 征服되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만일에 이것을 잘못 治療해 가지고 지금 우리같은 경우 重患이 되었다고 하면은 옛날말로 3기가 되었다고 하면은 완치율이 아직도 30, 4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處方을 해서 치료하는 課長은 저희 保健所 또는 專門家 또는 그에 종사하는 醫療人들의 양심을 믿으시고 믿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哲學의인 얘기로는 결국 믿어 주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崔哲模委員 지금 우리 城北區에 등록 관리중인 結核 患者는 몇명입니까?

○保健指導課長 黃寅攝 指導課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80명이 登錄되어서 治療를 받고 있습니다.

○崔哲模委員 580명이라는데 그러면 1년에 增加되는 人員이 몇명이나 되어요?

○保健指導課長 黃寅攝 퇴록이 1년에 400명 정도 되고, 治療가 되어 가지고.

○崔哲模委員 增加되는 人員이 얼마나 됩니까?

○保健指導課長 黃寅攝 그러니까 새 患者가 자꾸 생기고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登錄해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580명이죠.

○崔哲模委員 治療만 해서 능사가 아니고 가격을 또 싸게 해 준다고 해서 能事도 아니고 이것을 감염이 안되게끔 弘報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判斷 같은데요. 弘報를 많이 하십니까?

○保健所長 李澄淵 그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결핵은 豫防이 아주 중요하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98%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BCG입니다. 그래서 지금 BCG는 반드시 생후 1개월 이내에 맞추어야 됩니다. 생후 1개월 이내에 맞추어야만 이 BCG는 結核에 거의 안걸립니다. 그런데 BCG사업이 아시다시피 조금 副作用이 있습니다. 事實은 맞고 나서 여기 서해부 또는 인파선이 부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불만이긴 불만이죠. 가진 사람도 상당수,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今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去年에 豫算審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하게 부종이 온 2명에 대해서는 지금 동대문 시립병원과 서대문시립병원에 가서 治療를 받고 했는데요. 소아가, 副作用이 나서. 그러나 이 副作用을 감수하고라도 그 副作用은 또 틀림없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豫防은 여러가지 豫防策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重要한 것인 BCG입니다.

○委員長 安敦洙 韓春子委員님,

○韓春子委員 지금 所長님께서 상세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酬價條例를 原案대로 通過하는 것으로 하고 한달에 2,000

원이라는 약. 값이라면은 상당히 싼 것입니
다. 그리고 예전에 그 약이 귀할 때에는
5만원에서 3, 4만원까지 했다고 하니까 原
案대로 通過시켜 주시기를 動議합니다.

(「再請합니다」하는 이 있음)

(「三淸이요」하는 이 있음)

더이상 質疑와 討論이 있습니까?

本 案件에 대하여 異議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保健所長 李澄淵 感謝합니다.

○委員長 安敦洙 異議가 없으시면 서울特別
市城北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
대로 議決하였음을 宣布합니다.

市民福祉委員會 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議事日程 논
의가 끝으므로, 第1次 市民福祉委員會 會議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52分 散會)

○出席委員 11人

權 赫 騏	金 承 泰	金 正 圭
朴 德 基	韓 春 子	李 明 煥
崔 相 烈	蘇 正 煥	崔 哲 模
安 敦 洙	金 榮 植	

○缺席委員 2人

洪 淸 一	金 鍾 煥
-------	-------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崔 石 根
---------	-------

○參席議員

副 議 長	吳 案 泳
-------	-------

○參席公務員

保 健 所 長	李 澄 淵
保 健 指 導 課 長	黃 寅 攝